

주요 내용

1. [교회 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

교회 출석 청년 4명 중 1명, '요즘 외롭고 우울하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무종교인의 종교 경전 인식

2) 자영업자 실태



*사진의 출처는 안양감리교회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교회 출석 청년 4명 중 1명, ‘요즘 외롭고 우울하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삶은 고달프다. 낮은 청년 취업률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청년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다. 미디어의 발달은 상대적 빈곤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실현 욕구를 함께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기독교 청년 인식 조사’는 한국교회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위 조사결과 중 가나안 청년을 제외한 교회 출석하는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고민과 상황을 살펴본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신앙으로 메꿔지지 않은 교회 청년의 불안함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40%에 지나지 않았으며 37%가 요즘 ‘불안’을, 26%가 ‘외로움’과 ‘우울’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불안은 교회 이탈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56%)은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떠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19세~34세 개신교인 남녀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 교회 출석자 : 760명* - 가나안 성도 : 240명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11월 8일 ~ 11월 14일 (7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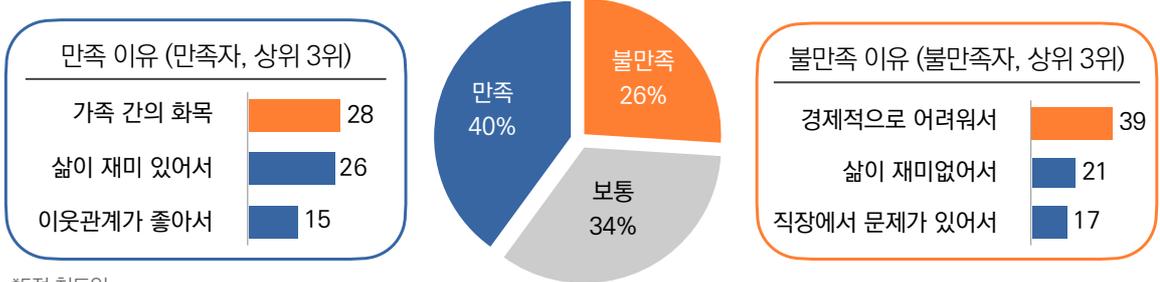
*이번 넘버즈에서는 '교회 출석자' 결과만 다룸

01

[교회 청년의 삶의 만족도] 교회 청년 삶의 만족도 높지 않아!

- ▶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에게 요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만족' 40%, '보통' 34%, '불만족' 26%로 기독 청년 5명 중 2명만이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들에게 만족 이유를 물었더니 '가족 간의 화목(28%)'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삶이 재미있어서(26%)', '이웃관계가 좋아서(15%)' 등의 순이었다.
- ▶ 반대로 불만족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생활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39%)'였다.

[그림] 삶의 만족도* 및 이유 (교회 출석 청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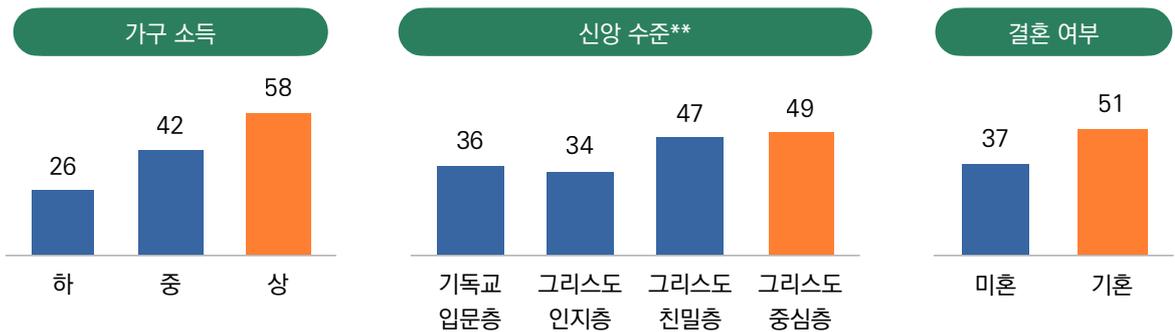


*5점 척도임

◎ 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미쳐!

- ▶ 삶의 만족도를 인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자보다 기혼자에게서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소득, 신앙단계, 결혼 여부 등 3가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도에 가장 변별력이 높은 변수는 '가구 소득', 즉 경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응답자 특성별 삶의 만족도 (교회 출석 청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표]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항목	Beta 계수	영향력(%)
가구 소득	0.263	52.7
신앙 단계	0.147	29.5
결혼 여부***	0.089	17.9

*5점 척도임

Note) 신앙 단계에 대한 보기를 주고 선택한 수준임

1단계(기독교 입문층)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단계(그리스도 인지층)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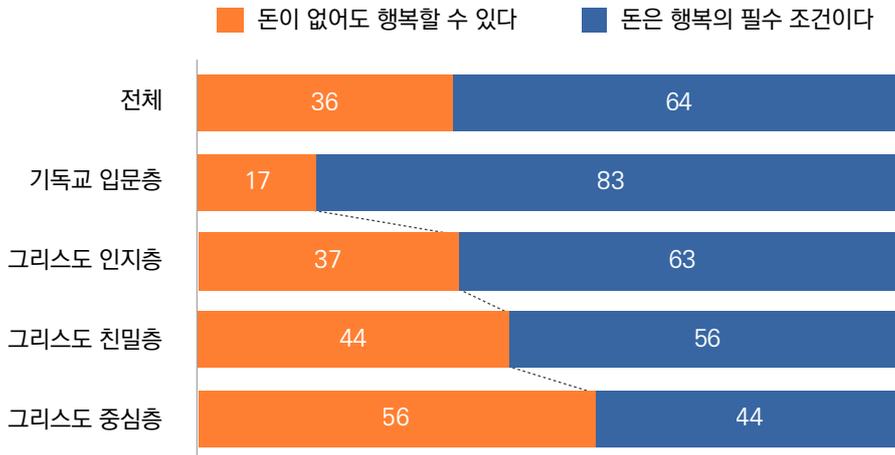
3단계(그리스도 친밀층)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그리스도 중심층)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 신앙이 깊은 청년일수록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

- ▶ 이번에는 돈과 행복에 관한 문장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물었다. 교회 청년 3명 중 2명(64%)은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에 그렇다고 응답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 ▶ 하지만 신앙 수준별로는 인식의 큰 차이가 있었는데,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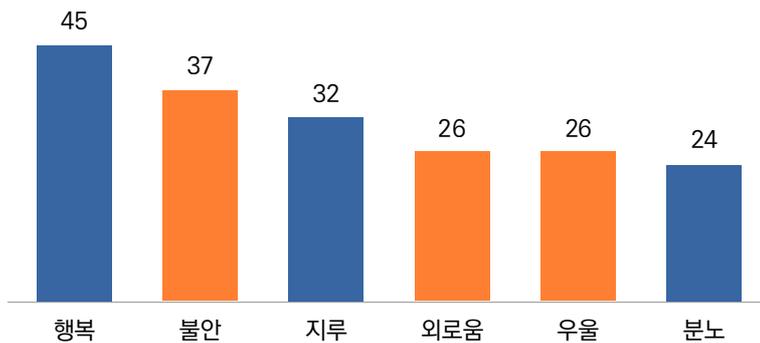
[그림] 돈과 행복에 관한 인식 (교회 출석 청년, %)



◎ 교회 청년, 4명 중 1명, ‘요즘 외롭고 우울하다!’

- ▶ 현재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감정을 제시하고, 각각의 동의율(매우+그런 편)을 확인한 결과, ‘행복’은 45%, ‘불안’은 37%가 응답했으며, ‘외로움’과 ‘우울’이 각각 26%로 나타났다. 즉 교회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은 불안하고, 4명 중 1명꼴로 외롭거나 우울한 상태인 것이다.

[그림] 요즘 느끼는 감정 (교회 출석 청년, ‘매우+그런 편’ 비율*, %)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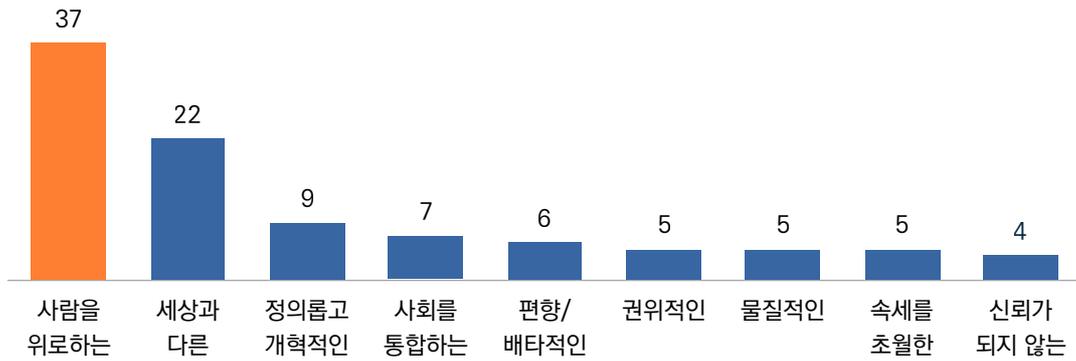
02

[교회 청년의 기독교 인식]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람을 위로하는’!

- ▶ 교회 출석 청년에게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해 묻은 결과, ‘사람을 위로하는’ 이미지를 37%로 가장 많이 떠올렸다. 그다음으로 ‘세상과 다른’, ‘정義롭고 개혁적인’, ‘사회를 통합하는’ 등의 순으로 응답됐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보다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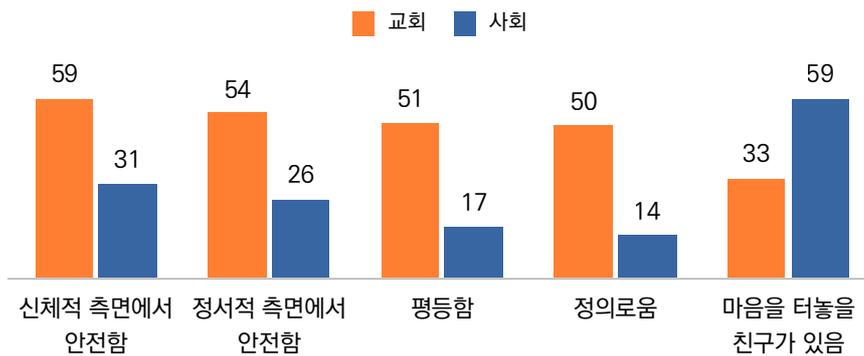
[그림] 기독교 이미지 (교회 출석 청년, %)



◎ 교회가 사회보다 ‘평등’하고, ‘정義롭다’!

- ▶ 교회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교회 청년들의 동의율(매우+그런 편)을 확인한 결과, 교회 공동체의 (신체적/정서적) 안전함, ‘평등함’ 그리고 ‘정義로움’에 대한 동의율이 사회의 안전함, 평등함, 정義로움 대비 훨씬 더 높았다. 사회보다는 교회에 관해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 ▶ 다만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에는 사회 59%, 교회 33%의 동의율을 보여 교회 내 깊은 관계에 관해서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교회, 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교회 출석 청년, ‘매우+그런 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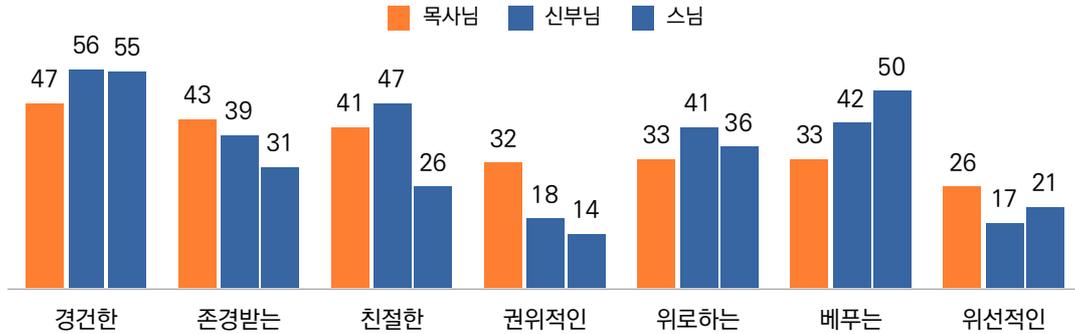


*5점 척도임

◎ 성직자의 ‘위로하는’ 이미지, 목사님이 신부님/스님보다 약해!

- ▶ 이번에는 주요 종교별 성직자의 이미지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목사님’은 ‘존경받는’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타 종교 지도자 대비 ‘베꾸는’, ‘위로하는’ 등 긍정적 이미지는 낮았고, ‘권위적인’, ‘위선적인’ 등 부정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기독교 이미지로 가장 많이 선정된 ‘위로하는’의 이미지는 타 종교 성직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림] 종교별 성직자 이미지 (교회 출석 청년, 1+2+3순위, 목사님 기준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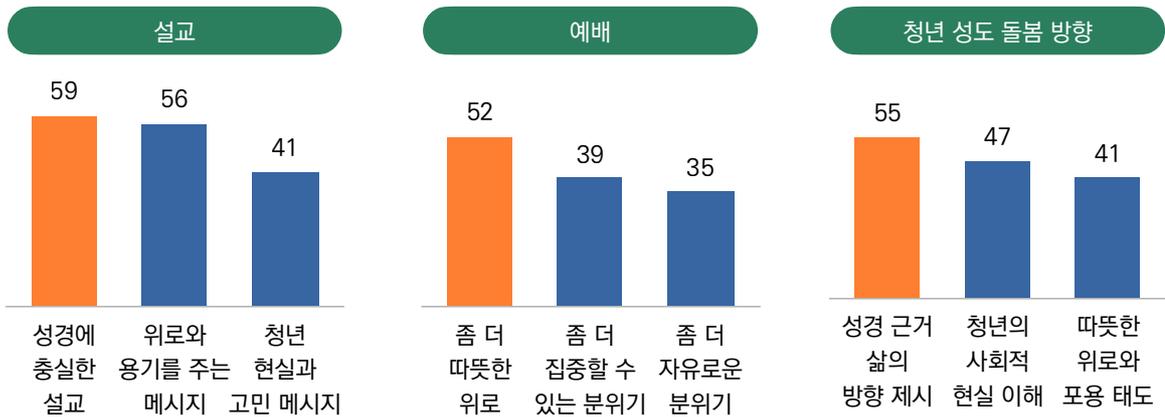


03

[청년이 기대하는 교회]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 원해!

- ▶ 출석하는 교회의 ‘설교’, ‘예배’, ‘돌봄 방향’ 측면에서 바라는 점을 살펴본 결과, 교회 청년들은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있는 예배’,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돌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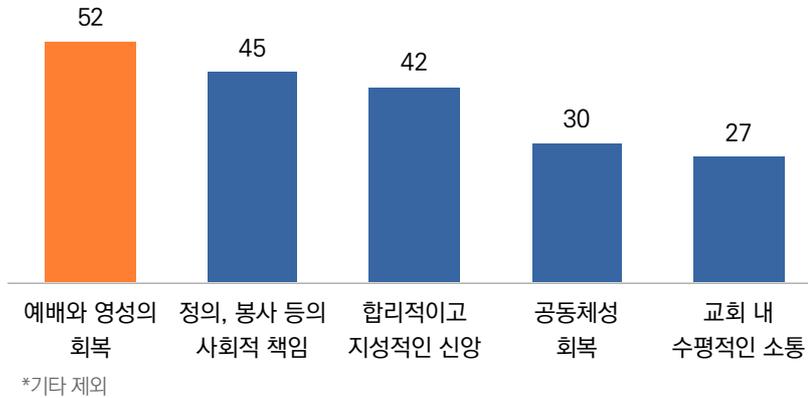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에 바라는 점 (교회 출석 청년, 1+2+3순위, 상위 3위, %)



◎ 교회 청년이 가장 많이 꼽은 한국교회 개선 사항, ‘예배와 영성 회복’!

- ▶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할 점에 관해서는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 52%로 가장 많이 응답됐고, 이어 ‘정의, 봉사 등의 사회적 책임’(45%)과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42%)이 높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예배와 영성을 회복해야 하며, 지성적 신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 청년의 생각이다.

[그림] 한국교회 개선 사항* (교회 출석 청년,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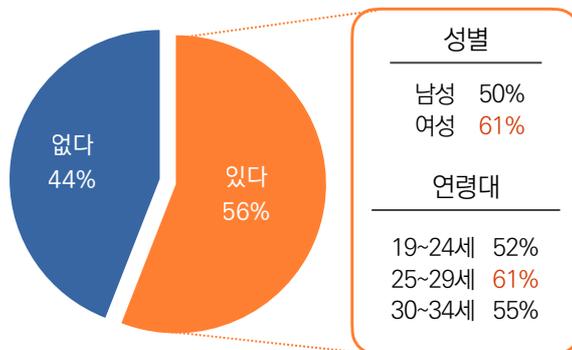
04

[청년의 교회 이탈]

교회 청년 56%, 교회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적 있어!

- ▶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인 56%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여성’과 대학 졸업 직후(취업 준비) 혹은 제대 이후 시점인 ‘25~29세’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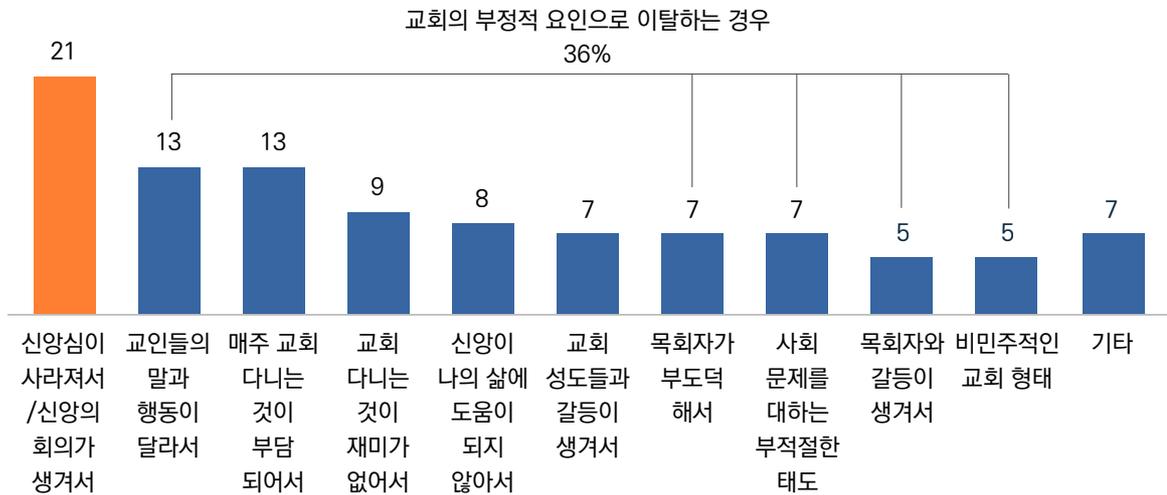
[그림]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났던 경험 (교회 출석 청년)



◎ 교회 이탈 청년의 이탈 이유, 교회 부정적 요인 36%

- ▶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신앙심이 사라져서/신앙의 회의'란 이유를 21%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매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담돼서'란 응답도 각각 13%였다.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목회자가 부도덕해서' 등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총 36%에 해당했다.

[그림]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났던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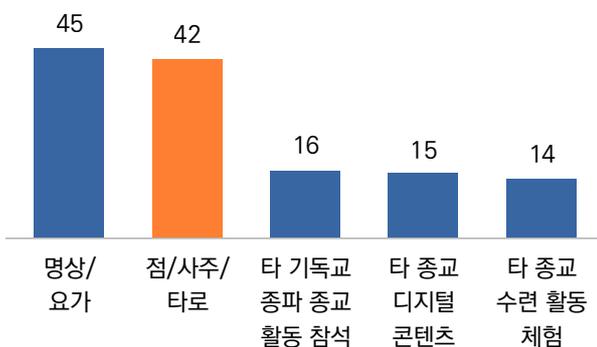
05

[기타]

교회 청년 10명 중 4명 이상, '점·사주' 봤다!

- ▶ 교회 청년들의 타 종교/콘텐츠 경험률은 어느 정도일까? 명상/요가, 점/사주/타로 등 타 종교/샤머니즘 관련 활동/콘텐츠를 제시하고, 각각의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명상/요가(45%)', '점/사주/타로(42%)'의 경험률이 10명 중 4명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타 기독교 종파 종교 활동 참석' 16%, '타 종교 디지털 콘텐츠' 15%, '타 종교 수련 활동 체험' 14% 등의 순이었다.

[그림] 타 종교/콘텐츠 경험 여부 (교회 출석 청년, %)



한국 사회 청년의 상황은 빈곤하고 불안하다. 서울 청년 절반 이상(56%)이 빈곤하며, 3명 중 1명 이상(35%)은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다.¹⁾ 장기간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제는 더 경색되고 각자도생의 경쟁사회에서 청년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탈종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의 무종교인 청년 비율은 어느 세대보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한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국민의 종교인 비율은 37%인데 20대와 30대의 종교인 비율은 이보다 한참 낮은 16%와 19%로 전체 국민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²⁾ 20대와 30대의 개신교인의 비율은 각각 9%와 11%이며,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 비율이 각각 71%, 67%이니,³⁾ 청년 100명 중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은 7명 정도인 셈이다. 코로나 이전 조사한 기독교 청년 조사에서는 10년 후 신앙생활을 예상하는 질문에 교회 출석 청년의 36%가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또는 ‘신앙을 버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다.⁴⁾

이번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기독교 청년 인식조사’는 이러한 청년세대의 위기와 교회 이탈을 위중한 문제라고 여겨 이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살펴보는 한편 교회를 향한 청년들의 기대와 필요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먼저 ‘교회 청년의 불안함’이다. 요즘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40%에 지나지 않았으며, 요즘 느끼는 감정으로 ‘불안’하다는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하다는 비율은 신앙 수준과 경제적 수준에 반비례했는데 신앙 수준이 낮거나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불안의 정도는 높았다. 이러한 청년의 불안한 감정은 신앙 외적인 요소에서 평안을 추구하고 미래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무려 40% 이상의 교회 청년들이 ‘명상/요가’(45%), ‘점/사주/타로’(42%)를 경험했고, 더 놀라운 것은 경험자의 80%가 신앙에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점이다.

한편으로 교회 청년들은 안전함, 평등함, 정의로움 등과 같은 사회 보편적인 가치에 관해서 사회보다 교회에 더 큰 신뢰가 있었다. ‘정서적 안전함(54%)’에 관해서는 사회보다 2배 이상, ‘평등함’과 ‘정의로움’에 관해

서는 사회보다 3배 이상 교회를 더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좀 더 안정과 위로를 찾으려는 청년의 불안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사회와 현실에서 지친 청년들이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는 결과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다른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꼽힌 것이 ‘사람을 위로하는(37%)’이었으며, 신앙생활의 이유로 ‘구원(26%)’ 못지않게 ‘마음의 평안(24%)’이 높은 선택을 받았다. 출석 교회 설교에 바라는 점으로 ‘성경에 충실한 설교(59%)’ 다음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56%)’가 꼽혔고, 예배에 바라는 점 1위는 ‘좀 더 따뜻한 위로’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독교 청년의 감정은 불안한 현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러한 기독교 청년의 삶과 신앙 간 상관관계를 ‘돈과 행복에 관한 인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가치 진술문에 무려 교회 청년의 64%가 동의했는데 신앙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의 경우 오히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에 56%로 더 높은 동의를 보였다. 신앙의 힘으로 돈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데이터이다.

앞서 교회 출석 청년이 100명 중 7명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종교를 가진 청년 중 개신교인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점이다. 이들이 한국 교회 개선 사항으로 예배, 영성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언급한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먼저 기독교 청년들의 불안한 실존적 삶에 영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삶과 신앙은 분리된 것이 아님을 다시금 주지시켜야 한다. 그다음으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을 내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청년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바람대로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1) 한국일보, ‘서울 청년 절반은 ‘빈곤’...3분의 1은 ‘우울 증상’, 2023.12.07.

2)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현황’, 2024.01.16. (전국 만 19세 이상 4,745명, 전화조사, 2023.10.18.~11.01.)

3)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4) 넘버즈 84호, ‘기독교 청년 신앙 의식’

1.[무종교인의 종교 경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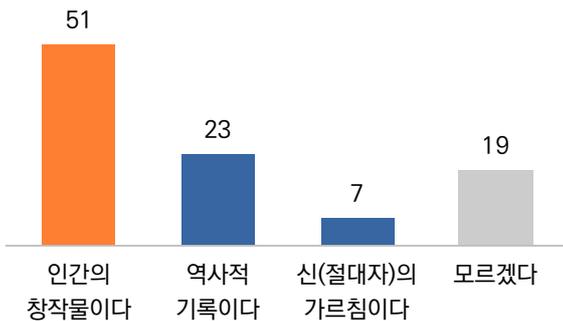
2.[자영업자 실태]



무종교인 절반, '종교 경전은 인간의 창작물!'

- ▶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종교 경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한국리서치)가 발표됐는데, 이 중에서 '무종교인'들의 인식만을 뽑아 분석해 보았다. 성경, 불경 같은 종교 경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무종교인'의 절반(51%)이 종교 경전은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이어 '역사적 기록이다' 23%, '모르겠다' 19% 등의 순이었다. '신의 가르침이다'라는 의견은 소수(7%)에 그쳤다.

[그림] 종교 경전에 대한 정의 (무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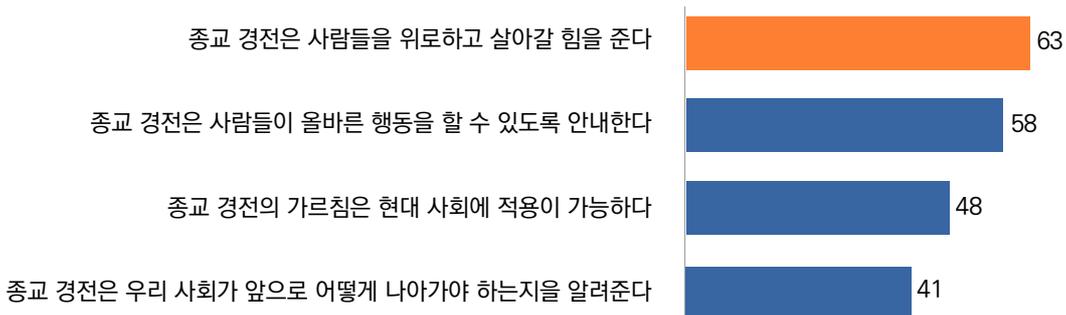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종교 경전에 대한 인식조사', 2024.01.23. (전국 만 18세 이상 무종교인 499명, 웹조사, 2023.11.24. ~11.27.)

◎ 무종교인 3명 중 2명, 종교 경전의 '위로와 힘' 인정

- ▶ 종교 경전에 대한 몇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본 결과, '종교 경전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갈 힘을 주며(63%)',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된다(58%)'는 데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으로써 역할에는 41%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무종교인도 종교 경전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그림] 종교 경전에 대한 인식 (무종교인,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종교 경전에 대한 인식조사', 2024.01.23. (전국 만 18세 이상 무종교인 499명, 웹조사, 2023.11.24. ~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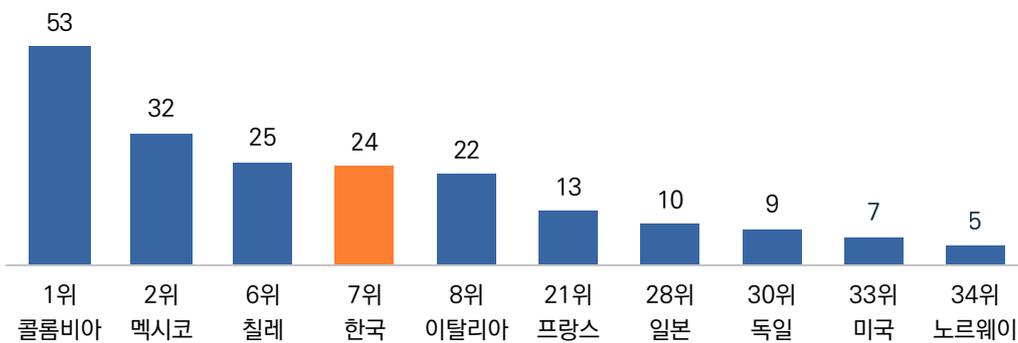
**5점 척도



일하는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

- ▶ 길거리를 걷다 보면 치킨집, 프랜차이즈 커피숍, 미용실,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 OECD의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 ▶ OECD 주요 국가별 자영업 비중을 보면 노르웨이가 5%로 가장 낮은 국가였고, 미국 7%, 독일 9%, 일본 10% 등이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에 속했다. 한국은 남미 국가(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등과 함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7위)로 꼽혔다.

[그림] 자영업자 비중 (OECD 34개국 중 주요국, 202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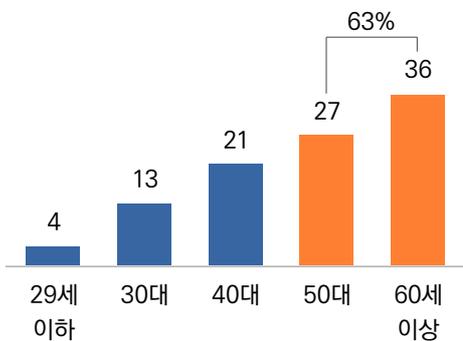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OECD, self-employment rate 참조(나라별 조사일 상이, 2021~2022)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 자영업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 중·노년층!

- ▶ 연령별로 봤을 때 자영업자 3명 중 2명 가까이가(63%) 50대 이상으로 나타나 젊은 층보다는 중/노년층 비중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은퇴자 등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 중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림]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 (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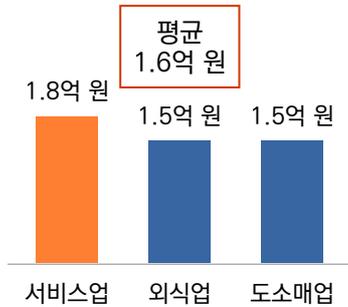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최저임금 안 되는 벌이에 빚까지...자영업자 비중 20% 첫 붕괴, 2023.08.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976#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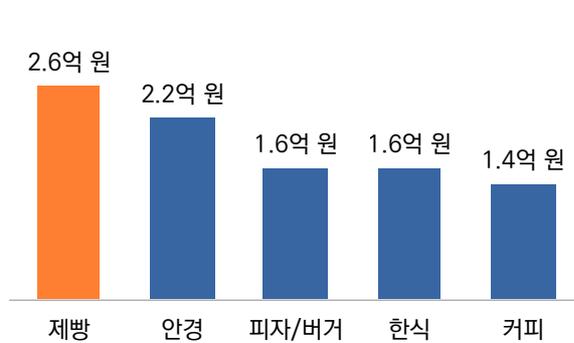
◎ 자영업자 신규 창업비, 평균 1억 6천만 원!

- ▶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어 이를 통해 자영업 창업 비용 등을 살펴본다. 신규 창업비는 평균 1억 6천만 원이었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제빵이 2억 6천만 원으로 가장 창업비가 많이 들었고, 이어 안경, 피자/버거, 한식 등의 순이었다.

[그림] 신규 창업에 드는 비용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그림] 세부업종별 창업비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상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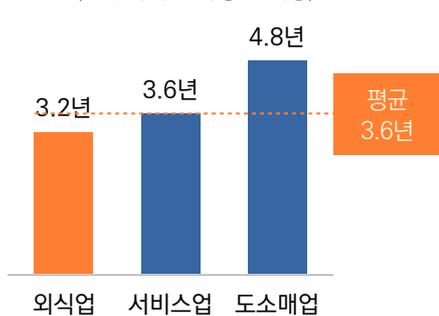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2024.01.05.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800개사, 가맹점 1,000개, 온/오프라인 조사, 2023.09.21.~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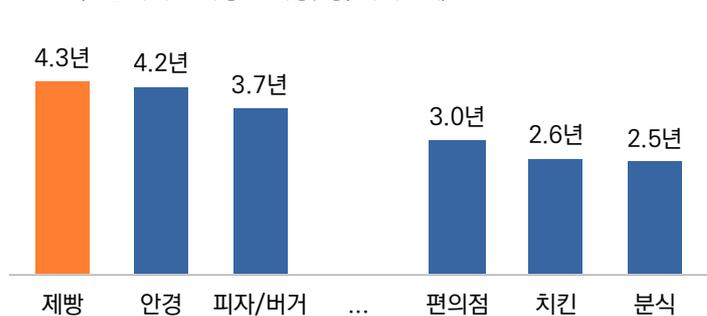
◎ 투자 비용 회수까지 평균 3.6년, 제빵이 4.3년으로 가장 길어!

- ▶ 그렇다면 창업 시 처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투자 비용 회수까지는 평균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업은 3.2년, 서비스업 3.6년, 도소매업은 5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세부업종별로는 분식(2.5년), 치킨(2.6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안경(4.2년), 제빵(4.3년)은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다.

[그림] 투자 비용 회수 기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그림] 세부업종별 투자 비용 회수 기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상/하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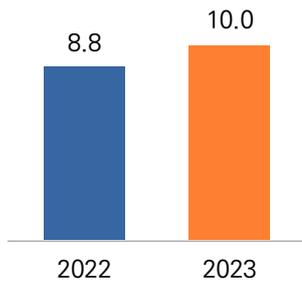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2024.01.05.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800개사, 가맹점 1,000개, 온/오프라인 조사, 2023.09.21.~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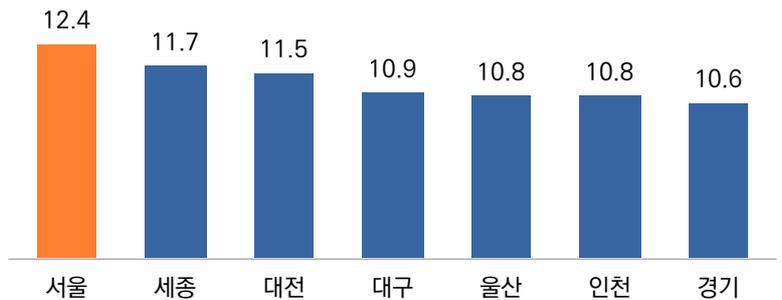
◎ 2023년 전국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 ▶ 그렇다면 고물가, 경기침체 속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잘 버티고 있을까? 전국 자영업 폐업률(외식업 기준)을 살펴본다. 2023년 기준 전국 자영업 폐업률은 10.0%로 자영업자 10명 중 1명꼴로 가게/사업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2.4%로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 대전, 대구, 울산, 인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 전국 자영업 폐업률** (외식업 기준, %)



[그림] 전국 시도별 자영업 폐업률 (2023년, 외식업 기준,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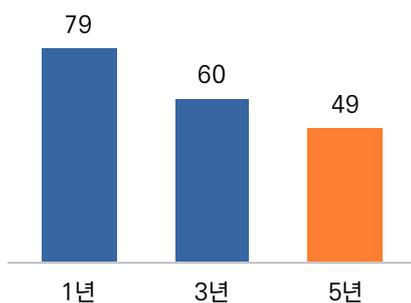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경제, 6년 버틴 정준하도 접었다...서울 덮친 '줄폐업 공포', 2024.01.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705867>)

**폐업 업체 수/(총 영업업체 수 + 폐업 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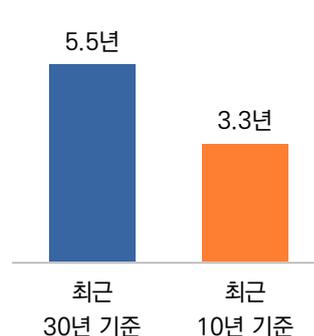
◎ 서울 자영업자, 창업 후 5년 내 절반만 살아남았다

- ▶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서울시 기준으로 알아본다. 전체 서울시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1년 차가 79%, 3년 차가 60%였고, 5년 차에는 49%의 자영업자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또한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최근 30년 기준으로는 5.5년이지만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3.3년으로 영업 기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림] 자영업 연차별 생존율 (서울시, 2023년 3분기, %)



[그림] 자영업 평균 영업 기간 (서울시, 2023년 3분기)



*자료 출처: 서울시,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지역·상권별 현황) 활용 (<https://golmok.seoul.go.kr/stateArea.do>)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72호 \(2024년 1월 4주\)](#)

- 양대 정당 대표 역할 평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5개 정당별 총선지지 의향여부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14호 \(2024년 1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 부동산 정책 평가 등

[2030 女 “여성정책 보고 투표할 것” 남성의 2배](#)

문화일보_2024.1.24.

◎ 사회 일반

[인구 줄어도 1인 가구 폭증... 서울 살 집이 부족하다](#)

조선일보_2024.1.24.

[‘인구 블랙홀’ 수도권 기업 6% 늘 때, 경남은 28% 사라졌다](#)

서울신문_2024.1.28.

[이젠 반려동물 ‘49재’까지... 전용 법당도](#)

조선일보_2024.1.23.

[금천구는 가정폭력·아동학대...강남구는 성매매 최다](#)

중앙일보_2024.1.23.

[독일 세금 절반만 내는데...한국, 애 들 키워도 혜택 별로 없다](#)

중앙일보_2024.1.25.

[aT "설 차례상 비용 약 31만원... 작년과 비슷"](#)

조선비즈_2024.1.23.

['나혼자 산다'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중·고위험군 22.4%](#)

연합뉴스_2024.1.28.

["한국은 가장 우울한 사회"...미국 인기 심리연구가 진단](#)

연합뉴스_2024.1.18.

[‘팬데믹’ 30대 여성 셋 중 하나 자살충동, 남성 2배...왜?](#)

한겨레_2024.1.25.

◎ 청년 / 청소년

[“디지털기기 1시간 더 쓰면 수학 3점 하락”](#)

동아일보_2024.1.24.

◎ 경제 / 기업

[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 1위·제주 '꼴찌'...격차 1천200만원](#)

연합뉴스_2024.1.2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 직장인 상위 0.1% 평균 연봉 14억원…강원 0.1%와 3배 차이](#)

연합뉴스_2024.1.27.

[달달한 ‘시럽급여’?…비자발적 퇴직자 절반은 “받지도 못했어요”](#)

경향신문_2024.1.21.

[직장인 20% “지난 2주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

한겨레_2024.1.28.

[인력난 굳어진 韓 “2040년까지 해외서 연평균 45만명 데려 와야”](#)

중앙일보_2024.1.24.

[중국시장서 작아지는 한국…中수입액 비중 6%대로 밀려](#)

연합뉴스_2024.1.28.

◎ 세계 / 국제

["AI보다 기후변화가 올해 인류의 최대 위협"](#)

연합뉴스_2024.1.21.

["지구종말시계, 종말까지 90초…작년과 같지만 안정 의미 아냐"](#)

연합뉴스_2024.1.24.

◎ 건강

[온몸 아픈데 확진까지 평균 1년…원인 모르는 섬유근육통](#)

중앙일보_2024.1.20.

["이 운동 하면 10년 더 산다" 3위 축구, 2위 배드민턴, 1위는?](#)

조선일보_2024.1.24.

◎ 기독교 / 종교

[미디어, 신앙성장에 큰 도움](#)

한국기독교공보_2024.1.15.

["4명 중 1명 반려인"…이젠 반려동물 동반예배까지 등장](#)

데일리굿뉴스_2024.1.23.

[교회 떠나는 다음세대…2030 개신교인 10년 새 '반토막'](#)

데일리굿뉴스_2024.1.16.

◎ 기획기사 : 유예사회 갇힌 한국, (중앙일보)

[64년생 vs 93년생 인생시간표, 취업·결혼 4년씩 더 밀렸다](#) _2024.1.25.

[90대 노모-30대 아들 다 부양하는 5060... '깁세대'는 쉴 수 없다](#) _2024.1.25.

[2008 금융위기 직격탄, 80년대생부터 유예세대 본격화](#) _2024.1.25.

["3년 투자 땀 30년간 역대연봉"...취업·결혼 이래서 미룬다](#) _2024.1.26.

['재택스' 빠진 유예세대 "아껴야 잘산다? 아끼지 말고 잘살자"](#) _2024.1.26.

["12억 집 물려받아"vs"내가 집안 일으켜야"...엇갈린 유예세대](#) _2024.1.26.

[33세 '늦깎이 신입' 늘었다...취업 유예가 만든 비효율 사회](#) _2024.1.29.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촌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총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캠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대구평강교회(담임목사 이요셉), 오상웅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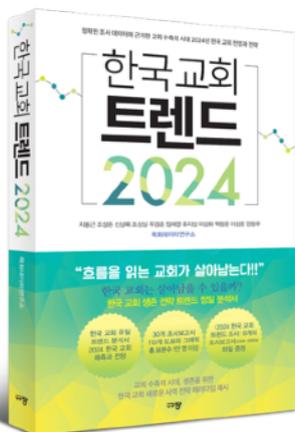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